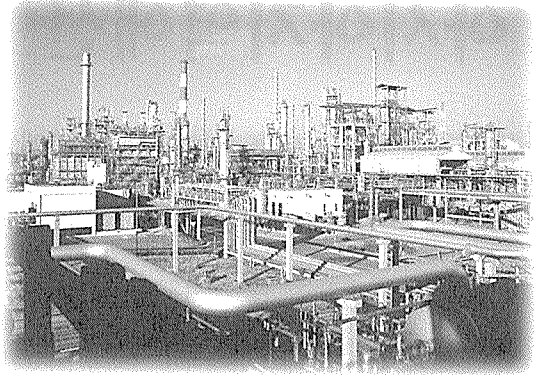


쌍용정유, 매각추진



쌍용은 쌍용투자증권을 H&Q AP(Hambrecht & Quist Asia Pacific)사(社)에 매각한데 이어 주력 계열사인 쌍용정유도 곧 매각할 예정이다.

쌍용은 18일 미국의 대표적 투자회사인 H&Q社의 관계사인 H&Q AP社에 선주식양도, 후결제 방식으로 쌍용 관련사들이 소유하고 있는 쌍용투자증권의 주식 28.11%를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H&Q AP社는 유상증자 및 CB 발행으로 1억2천만불(약 1,500억원)의 자금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와 아울러 쌍용투자증권 사육인 쌍용타워를 외국 기업에 8천만불에 매각하기로 함으로써 모두 2억불 정도의 외자 유치 효과를 거두게 되었다.

쌍용은 이어 주력 계열사인 쌍용정유의 매각 협상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빠르면 다음 달 중에 성사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현재 쌍용정유의 주식지분은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 석유회사인 사

우디 아람코社가 35%, 쌍용양회가 28.4%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쌍용자동차를 대우에, 쌍용제지를 P&G에 매각한데 이어 쌍용양회의 미국 현지 법인인 Riverside Cement社와 쌍용건설의 미국 투자개발사업인 Marriott Residence Inn 호텔을 매각하는 등 구조 조정에 앞장서온 쌍용은 이번 쌍용투자증권 매각과 향후 쌍용정유 매각으로 모두 10억불 이상의 외자를 유치하게 된다.

쌍용양회가 그동안 추진해온 일부 사업부문의 spin-off도 최근 상당한 진척을 보여 이것이 성사되는 경우 10억불의 외자가 추가로 도입됨으로써 현재 399%에 이르는 그룹의 부채비율이 내년 말까지 199%로 낮아질 전망이다.

한편 쌍용해운도 중고선 3척을 일본에 팔아 1천250만불의 외자를 조달했다. ☺